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KOGA 朝泰
Vol. 97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공식 출범했다.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에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이정휴 PT Geesan Indonesia(주) 대표가
선임되었다

재인도네시아 한국 봉제협회
KOREA GARMENT ASSOCIATION IN INDONESIA

2026년 인도네시아 최저임금 발표 연기… “지역별 현실 반영한 새 산정 방식 마련”



▲야시에를리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장관

인도네시아 정부가 당초 2025년 11월 21일로 예정되었던 2026년 주단위 최저임금(UMP) 발표를 공식 연기했다.

야시에를리 노동부 장관은 헌법 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각 지역의 경제적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정에 적용될 새로운 공식을 마련하고 있다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현재 판결에 따른 전면 개편…
“전국 단일 인상을 폐지”**

야시에를리 노동부(Kementerian Ketenagakerjaan) 장관은 지난 11월 21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 MK)의 제168호 판결 취지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새로운 임금 체계를 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은 2026년 주단위 최저임금(Upah Minimum Provinsi, UMP)을 포함한 모든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자 적정 생계비(Kebutuhan Hidup Layak, KHL)’를 핵심 변수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준에 사용되던 2021년 제36호 대통령령(Peraturan Pemerintah, PP) 기반의 산정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의 결정으로 전국 일률 6.5% 인상이 적용되었던 2025년 UMP 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다. 정부는 더 이상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인상을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다.

새롭게 마련될 임금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제·사회적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각 지역의 경제성장률

노동자 생산성

근로자 적정 생계비(KHL)

각 주·군·시 단위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의 권한
야시에를리 장관은 “적정 생계비가 얼마인지 추계하기 위해 팀을 구성하여 이를 공식화하고 산출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지역 자율성 대폭 강화… ‘알파 인덱스’ 조정 및 중앙정부 불개입 원칙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대폭 이양하는 것이다.

노동관계국장 인다 앙고로 푸트리는 “내년부터는 각 주·군·시 임금위원회가 자체 연구를 통해 UMP 인상 권고안을 마련하고, 각 주지사가 이를 최종 결정 및 공표하게 될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이 과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적 변화는 ‘알파(alpha) 인덱스’의 조정이다. 기존 산정 공식에서 근로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나타내는 알파 지수는 0.10에서 0.30 사이로 제한되었으나, 앞으로는 이 범위가 확대되어 지역별 재량권이 커진다.

인다 국장은 “경제 성장률이 높은 지역은 더 큰 폭의 UMP 인상이 가능해지고, 반대로 경제 여건이 취약한 지역은 현실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역별 경제 격차를 임금 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기존 2021년 제36호 대통령령이 규정했던 ‘매년 11월 21일’이라는 UMP 발표 시한에도 더 이상 얹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준비 중인 규정은 노동부령(Permenaker)이 아닌 대통령령(PP) 형태로 추진되므로, 기존 법령의 시한 규정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경영계, “환경하지만… 예측 가능성 확보가 투자 유치의 핵심”

매년 연말 반복되는 최저임금 협상과 정책 변화에 대해 경영계는 우려 섞인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인도네시아 경영자총회(Asosiasi Pengusaha Indonesia, Apindo)는 이번 조치가 각 지역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임금 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투자 환경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Apindo의 밥 아잠 노동담당 위원

장은 “지난 10년간 임금 관련 규정이 수시로 변경되면서 기업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투자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투자의 생명은 확실성인데, 매년 깜짝 발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은 경제 리스크는 관리할 수 있지만, 예측 불가능한 규제 변화는 통제할 수 없다”면서, “불안정한 임금 제도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향후 임금 결정 체계가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어야만 기업들이 장기적인 고용 및 투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는 곧 노동 시장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야시에를리 장관은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노동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대통령령 초안은 최종 검토를 거쳐 프라보워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인포스트]

WhatsApp 계정 통한 피싱 시도 증가… 대사관, 동포사회에 주의 당부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최근 해킹된 WhatsApp(WA) 계정을 이용한 피싱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동포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저녁에 갚겠다”는 송금 요청 메시지 확산

대사관에 따르면 최근 해커가 탈취한 WA 계정을 이용해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송되고 있다. 메시지는 주로 인도네시아어로 전송되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사용된다.

“Selamat siang(sore), Bisa minta tolong punya saldo 15jt di rekening gak pinjam dulu nanti malam jam 7 saya balik in”

이 문장은 15 juta 루피아를 잠시 빌

려달라며, 저녁 7시에 갚겠다는 내용이다. 대사관은 “지인의 계정에서 이 같은 송금 요청이 오더라도 반드시 통화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혼식 초대 파일·전자 벌금 통지로 위장

또 다른 유형은 결혼 안내(Undangan Pernikahan) 또는 **전자 벌금 통지(Surat E-Tilang)**로 위장한 문서 파일을 보내는 방식이다.

UNDANGAN PERNIKAHAN.PDF

117MB · APK

SURAT E-tilang elektronik

4.7MB · APK

이들 APK 파일은 악성코드를 포함한 프로그램으로, 실행할 경우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절대 열지 말고 즉시 차단해야 한다.

피해 의심 시 즉시 확인·차단해야 대사관은 “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발신자 이름으로 저장된 지인에게 직접 확인하고 해당 계정을 차단하라”고 당부했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위험이 예상될 때는 아래 기관에 즉시 연락할 수 있다.

△대사관 영사과(근무시간 중): +62-21-2967-2580 △대사관 당직전화(24시간): +62-811-852-446

△외교부 영사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대사관은 “WA 계정을 노린 피싱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동포사회에 지속적인 주의를 요청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이래, 34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T. +62 21 440 3926
F. +62 21 440 3944

sales@dongjung.net
bhjangjkt@gmail.com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제22기 민주평통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에 인도네시아 이정휴 대표



▲이정휴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앞줄 좌측으로부터 세 번째) [자료사진=민주평통]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가 공식 출범했다. 동남아남부협의회 회장에 인도네시아 거주 한인 이정휴 PT Geesan Indonesia(주) 대표, 간사에 정제의 PT.Winners consulting 감사가 임명됐고, 해외상임위원으로 오선희 위원이 위촉됐다.

제22기 민주평통은 이재명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여 2025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번 기수에는 국내외에서 총 22,824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며, 전기보다 3.8% 늘었다. 해외 자문위원은 137개국 4,037명이며, 이 중 68.3%는 재외공관 주천을 거쳐 선발됐다. 청년 자문위원은 약 6천 명으로 역대 최고 규모다.

동남아남부협의회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티무르, 부르나이 등 동남

아 주요 지역을 포함하는 협의회로, 재외동포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동남아남부협의회에 따르면 신임 회장으로 임명된 이정휴 대표는 인도네시아에서 경제·동포사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인물이다. 그는 “동포사회 의견을 민주평통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고, 청년층 참여를 넓히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평통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 국내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에서 제22기 국내 지역회의 출범대회를 개최한다. 강원지역을 시작으로 제주까지 총 18회 열리는 이번 출범대회에서는 ‘국민과 함께 만드는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을 제22기 활동 목표로 공유한다.

이해찬 신임 수석부의장은 11

월 3일 취임식에서 “국민의 뜻을 모아 흔들림 없는 평화통일 의지를 이어가야 한다”며 “포용과 통합의 정신으로 새로운 통일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2기 민주평통은 향후 두 해 동안 국내외 위원들과 함께 통일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청년 참여 강화 등을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인도네시아가 포함된 동남아남부평의회 출범식은 다음달 11일 자카르타 쉐라톤 간다리 아시티 호텔에서 열린다. 데일리 인도네시아

〈동남아남부협의회 출범식〉
일시: 2025년 12월 11일 오후 2시
장소: 쉐라톤 간다리아 시티 호텔

인니 재무부, 탈세자 추징 통해 연말까지 세수 20조 루피아 확보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25년 현재까지 탈세자로부터 세금의 일부만 확보했으며, 연말까지 정부가 탈세자들로부터 징수하고자 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1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뿐만 아니라 유디 사데와 재무장관은 지난 14일, 세무서가 납세자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재무부가 목표로

한 총 50조 루피아~ 60조 루피아 중 8조 루피아만 징수했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세무부가 총액을 “천천히” 추징해 갈 것이며, 정부를 건드리지 말라고 체납자들에게 경고했다. 개인 및 기관 납세자로 구성된 약 200명의 위반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모두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일부 위반자들은 미납 세금을 선납하지 못해 분할 납부해야 했는데, 이러한 탈세자의 사례는 법원의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이전에 재무장관이 밝힌 바 있다.

비모 위자연도 세무국장은 “탈세자 중 일부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고 부채 구조조정 연장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가 연말까지 총 약 20조 루피아 정도를 징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8조 루피아는 10월 8일 기준 7조 루피아보다 약간 진전된 수치다. 탈세 단속은 올해 첫 9개월 동안의 총 세수가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9월 말 세금 징수액은 1,300

조 루피아로 연간 전망치의 62%에 불과했으며, 이는 2025년 예산법에 설정된 원래 수치에서 하향 조정된 것이다.

같은 기간 동안 전체 정부 수입은 전년 대비 7.2% 감소했으며 연간 목표의 65%에 불과했다. 재무장관은 세무 당국이 법무부, 경찰, 금융거래보고분석센터(PPATK), 부패척결위원회(KPK) 등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자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부가 국가 소득 증대를 위해 세율 인상보다는 경제 성장 촉진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그는 200조 루피아의 정부 예금을 중앙은행에서 5개의 상업 은행으로 옮겼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국가 예금은 이전 예산에서 지출되지 않은 자금으로 인해 누적되었다. 이 예금의 재배치는 대출 지출을 가속화하고 민간 부문 활동을 활성화하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세수 증대를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불법 담배 거래에 대한 더 엄격한 조치를 언급했다. 소비세 징수액이 현저히 감소해 정부 소득에 타격을 입혔다는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엘리베이터(화물용) 선택은 오케이가 최선입니다. 오케이엘리베이터 세계 어디든 함께합니다.

글로벌 엘리베이터 기업들과 쌓은
신뢰와 기술



화물용엘리베이터
FREIGHT ELEVATOR



승객용엘리베이터
PASSENGER ELEVATOR



식당용엘리베이터
DUMB WAITER



운반하역기계
DOCK LEVELER

오케이 엘리베이터(주)
OK VINA ELEVATOR CO.,LTD.
OK ELEVATOR CO.,LTD.
PT. OKE ELEVATOR INDONESIA

INDONESIA | LEE YOON HWAN
T. +62 21-8991-9999 F. +62 21-3873-5031
M. +62 852-1778-9098
E. okelevatorind@gmail.com

KOREA | 이윤환
M. +82 10-5313-8820 E. okelevator@naver.com

PT. OKE ELEVATOR INDONESIA
Ruko plaza menteng blok c no16 lippo cikarang bekasi 17550

모든걸 저희 OK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SAMSUNG 삼성물산

OTIS

ThyssenKrupp Dongyang
Elevator

MITSUBISHI
ELECTRIC

Schindler

산업통상자원부, 섬유·의류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생산성 향상과 노동 의존도 감소의 핵심



▲ 베트남 섬유의류협회 부회장인 쭈엉 반 캄(Truong Van Cam) 씨가 워크숍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 하이린(Hai Linh)

11월 19일 오전, 한국생산기술 연구원이 베트남 섬유의류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섬유산업 AI 및 디지털 전환 워크숍 개막식에서 산업통상부 산업국 산업개발지원센터 주 비엣 괴영 소장 직무대행은 자동화가 필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산 라인 디지털화, AI 기반 자동 재단 시스템, 스마트 생산 라인과 같은 솔루션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라 경쟁력의 결정적 요소입니다. 인건비 부담과 글로벌 공급망의 변동성 속에서 혁신에 실패하는 기업은 점점 더 도태될 것입니다.

섬유 산업의 경우 디지털 혁신은 기업의 생산성과 생산 안정성을 개선하고, 오류율을 줄이고, 원자재를 최적화하고, 제품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컨퍼런스에서는 많은 전문가와 기업들이 스마트 제조,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 재고 최적화, 운영 비용 절감 등 ‘핫’ 한 주제를 공유할 것

입니다. 이러한 주제들은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이 치열한 국제 경쟁 속에서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주 비엣 괴영 씨는 전했습니다.

시장 지속을 위한 이중 변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친환경 전환 또한 불가분의 관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3D 디자인, 제품 수명 주기 관리, 주적성 및 생산 데이터 분석 분야의 AI 기술은 패션 산업이 순환적 기준을 충족하고 배출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점차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워크숍에서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 부회장인 쭈엉 반 캄(Truong Van Cam) 씨는 주요 시장에서 환경 기준, 사회적 책임, 공급망 투명성 요구 사항에 대한 압력이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쭈엉 반 캄(Truong Van Cam) 씨는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의 한국 파트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한국이 현재 이 산업의

주요 외국인 투자자 중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년 말까지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에 9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이 중 섬유 및 의류 부문은 총 외국인 투자액이 약 300억 달러에 달했으며, 한국 투자자본은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하고 1,00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베트남 섬유 및 의류 협회 대표는 “이러한 수치는 기술 이전, 현대식 공장에 대한 투자, 지속 가능한 공급망 개발에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반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베트남의 섬유 및 의류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거듭하며 수출액이 배로 증가했으며, 2025년까지 약 4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수출 가

치를 유지하고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품질, 지속가능성, 그리고 기술 혁신 역량이 필수적입니다.

산업개발지원센터는 컨설팅, 국제 전문가 연결, 시범 생산 모델 홍보 등 기업 지원 과정에서 기술적 중심점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주 비엣 괴영(Chu Viet Cuong) 씨는 또한 산업통상부가 섬유 및 의류 기업을 지원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며,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생산성 향상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수출 시장의 환경, 노동, 사회적 책임 기준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베트남 섬유의류협회(VTIAA)는 특히 한국의 FDI 자본이 지원 조달 및 기술 이전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한

국 파트너들이 제안한 협력 프로그램, 교육 과정, 시범 사업 등을 통해 기업들이 비용 절감, 생산 효율성 향상, 디지털 기술 적용을 위한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노력은 최근 몇 년간 섬유 의류 산업의 강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워크숍에서 한국과 베트남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부터 대형 수출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업의 환경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자세히 논의했습니다. 실제 경험에 따르면 효과적인 단계는 간단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에서 시작하여 점차 통합되고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 파트너 선택, 재정 지원 방식, 그리고 정부 기관의 기술 지원 정책은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VITENAM.VN

인도네시아, 신형 전자여권 단계적 발급 시작



▲ 인도네시아 새 전자 여권 [사진=이민국]

인도네시아 이민청이 자외선(UV) 아래에서 발광하는 다색(멀티컬러) 보이지 않는 형광 잉크를 적용한 신형 전자여권(e-passport) 발급을 시작했다. 이 기능은 인도네시아 여권의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율디 유스만 이민청 직무대행은 지난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보안 기능 강화는 여권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인도네시아 여권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민청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여권이 전 세계적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국제 신분증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새

로운 기능을 통해 해외로 여행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에게 더 높은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율디는 신형 여권이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어, 국내와 해외에서 여권을 신청하는 국민 누구에게도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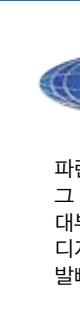
인도네시아 여권은 단순한 여행 신분증을 넘어, 디자인 요

소를 통해 국가 정체성을 담고 있다. 각 페이지에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묘사한 그림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도네시아의 문화 외교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율디에 따르면, 새롭게 적용된 보이지 않는 형광 잉크는 보안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문화적·자연적 풍요로움을 시각적으로 더욱 돋보이게 해준다.

그는 “강한 여권은 강한 국가를 반영한다”라며 “이번 혁신이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의 여정에 더 높은 가치를 더해줄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인도네시아, 불법 수입품과의 전쟁

불법 수입은 인도네시아 국내 제조업 부문에 큰 도전이다. 우려 사항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정부는 국내 시장에서 중고 의류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수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제 규제 조치는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판매 채널을 모두 포함한다.

이 데이터는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은 올해 첫 8개 월 동안 중국으로부터의 의류 수입(HS코드 61~63)을 2 억 5,160만 달러로 기록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의류 수출을 6억 8,800만 달러로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당국에 3억 5,640만 달러 상당의 의류 수입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잠재적으로 가해자가 수입 서류에서 세금과 수입 관세가 낮게 보이도록 물품의 가치를 낮추는 과소 신고 행위나, 물품이 전혀 신고되지 않는 불법 밀수 행위일 수 있다.

중고 의류의 수입은 오랫동안 금지되어 왔다. 이는 법률 제 17/2014호에 명시되어 있고 수출입 금지 물품에 대한 무역부 장관규정 제40/2022호에 의해 강화됐다.

불법 수입은 의류 부문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장 수요가 많은 다른 고가 부문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자제품, 신발, 철강 및 차량 예비 부품을 포함한 제조품은 공식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스넨 시장(Pasar senen)의 수입중고의류 판매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불법 수입이 국내 제조에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주요 영향 중 하나는 공정 경쟁의 붕괴다.

수입 관세, 세금 또는 기술 표준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반입되는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판매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세금, 생산 비용 및 품질 기준을 완전히 준수하고 있는 지역 생산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력이다. 제조업체는 수요 감소로 인해 생산 능력을 줄이면 일반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채용 중단 또는 해고로 대응한다. 이는 근로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노동시장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한다.

또한 불법 수입은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관세 및 세금으로 인한 정부 수입을 감소시킨다.

불법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상호 관련된 요인이 있다. 첫째, 진입 지점, 특히 소규모 항구와 비공식 경로에서의 미흡한 감시다. 인도네시아의 광범위

한 해안선, 제한된 자원 및 기술적 제약은 효과적인 감시를 어렵게 만든다. 밀수업자들은 종종 행정적 허점을 악용하여 문서를 위조하거나 물품을 잘못 분류하는 방식으로 적발을 피한다.

둘째, 감독 및 인허가 과정에서 청렴성이 부족한 공무원의 개입은 문제를 악화시킨다. 부패, 담합, 뇌물 수수는 불법 물품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법 집행력을 약화시킨다. 수입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번거롭다고 인식되는 경우 일부 기업은 비용 효율적인 대안으로 불법 채널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략적 조치를 시행했다. 여러 부처와 기관으로 구성된 불법 수입 태스크포스의 설립은 밀수업자에 대한 합동 운영과 단속을 용이하게 한다.

또한 올해 정부는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술 요건을 강화하며 금지 및 제한 품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부장관 규정을 개정했다. 이러한 규제 조정은 섬유, 전자제

품, 식품, 의약품 및 기타 소비재를 포함하여 밀수에 특히 취약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법 집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 법 집행은 물품 압수를 넘어 금융 흐름 추적, 물류 네트워크 해체, 가해자 자산 동결 등으로 일관되고 타협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벌금과 수입 허가 영구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필수적이다. 마찬가지로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규제 집행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감독 체계를 약화시킨다.

기관 간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 세관, 법 집행 기관, 군, 식품의약품안전청(BPOM), 검역 당국, 무역부는 정보 공유, 합동 작전 및 유통 채널 감시에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통해 소규모 항구, 밀입국 경로 및 문서 조

작 등 밀수업자들이 악용하는 허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불법 수입 태스크포스의 역량과 운영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예방 조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대중 인식 캠페인도 중요하다. 불법 수입품의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교육하면 불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합법적인 거래 경로를 더욱 준수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불법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 효과적인 기관 간 공조, 규제 명확성 및 대중교육의 조합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시장 안정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국가 수입도 증대시킨다.

불법 수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징벌적 조치가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제조를 강화하며 무역 거버넌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강화하는 지속 가능하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적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게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3002 9090/91 0821 1122 8827 (Mr. Kang)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위험합니다

인도네시아 건설환경에
최적화 되어있는 신화는
고객의 마음에 신뢰를 심어주는
건설기업입니다.

한국기업의 인도네시아 성공전략을
신화가 함께 하겠습니다.

Electrical, Mechanical, Construction,
Fire Fighting Total Solution,
Factory Control Consultant

PT. SHINHWA TECHNO PLANT

Kawasan Industri Jababeka II

Jl. Industry Selatan 8 Blok EE-6P Cikarang,

Bekasi 17530 Indonesia

Tlp. 021-8984-1283 Fax. 021-8984-1284

Email. shinhwatechno0408@gmail.com



2025년 3분기 누적 섬유패션 상장사 결산(78개사)

(단위: 억원)

구분	회사명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	영업이익률	순이익	증감률	영업이익률
면방 (17)	SG글로벌(연결)	664.5	-4.0%	40.4	20.9%	6.1%	25.1	-35.5%	3.8%
	금방(연결)	2,942.8	-2.6%	270.5	53.3%	9.2%	292.5	216.9%	9.9%
	대광(주)(연결)	1,179.2	14.1%	-3.6	-	-	-8.9	-	-
	다이아돌(연결)	4,636.4	-5.5%	16.1	-81.3%	0.3%	-70.2	-	-
	"양귀(연결)	882.3	9.0%	7.6	58.7%	0.9%	39.5	65.2%	4.5%
	달성인력(연결)	3,825.8	0.8%	54.8	34.7%	1.4%	215.2	-12.9%	5.6%
화섬 (6)	진영(연결)	314.0	-22.7%	-58.1	-	-	303.0	243.8%	95.5%
	소계	14,446.1	-0.4%	327.7	17.0%	2.3%	796.3	39.1%	5.5%
	대한화성	838.2	-12.5%	-30.3	-	-	98.8	98.7%	11.9%
	성안미트리얼스(연결)	112.3	-6.9%	18.2	6.6%	10.6%	-31.0	-	-
	태광산업(연결)	14,173.3	-13.3%	-580.9	-	-	478.6	-53.3%	3.4%
	비케이씨미칼	2,711.2	2.7%	12.1	6.4%	0.4%	1,271.9	9.2%	45.9%
수출 (10)	'호센티온씨(연결)	22,068.0	-7.4%	1,333.2	-12.6%	6.0%	-	-	-
	휴비스(연결)	6,741.0	-3.7%	98.3	6.5%	1.9%	90.6	93.1%	1.3%
	소계	46,701.0	-6.4%	2,441.6	-24.4%	1.8%	1,907.0	31.5%	4.1%
	SG세계물산(연결)	977.8	-5.8%	-10.6	-	-	16.3	-85.3%	1.7%
	TPJ(연결)	8,187.7	-0.4%	521.4	4.8%	6.4%	376.4	35.2%	4.6%
	동인기전(연결)	1,744.1	10.8%	149.8	-4.2%	8.1%	43.5	-45.5%	2.5%
기타 (8)	'영진무역홀딩스(연결)	34,460.1	14.6%	4,916.5	14.4%	14.3%	3,949.4	<2.0%	11.5%
	온타디(연결)	1,703.0	-9.8%	-16.3	-	-	-63.5	-	-
	월비스(연결)	1,414.1	-11.7%	-26.1	-	-	-114.4	-	-
	제이에스코퍼레이티(연결)	9,678.4	21.3%	595.7	9.9%	10.1%	629.5	-23.8%	6.5%
	현성인력(연결)	14,857.0	6.6%	695.9	-44.7%	4.7%	509.4	-33.1%	3.4%
	호전설립(연결)	3,831.0	8.4%	190.1	-13.4%	5.0%	49.4	-57.5%	1.3%
패션 (47)	화선엔터테인먼트(연결)	11,661.8	3.8%	228.8	-47.1%	2.0%	-139.9	-	-
	소계	88,581.0	9.2%	7,608.3	-0.6%	8.8%	5,256.1	-14.6%	5.9%
	디케이엔디(연결)	1,036.2	31.7%	83.8	20.5%	8.1%	63.7	10.7%	6.1%
	레진(연결)	35.9	-43.3%	-50.7	-	-	-52.2	-	-
	백신(연결)	3,906.9	7.5%	461.7	-18.2%	11.8%	287.1	-34.3%	7.3%
	승양화학(연결)	1,346.0	-7.2%	139.7	9.6%	10.4%	158.7	16.7%	11.8%
제조 (1)	밸크론(연결)	2,010.5	-14.1%	-93.0	-	-	-142.5	-	-
	유니(연결)	861.8	70.2%	21.4	6.5%	2.5%	15.8	6.5%	1.8%
	일정설립(연결)	272.5	-17.7%	12.9	-61.7%	4.7%	113.9	284.7%	41.8%
	조광피해	778.0	16.8%	61.8	27.7%	8.0%	85.8	1.6%	11.1%
	소계	10,248.2	4.8%	637.7	-6.2%	6.2%	530.3	6.0%	5.2%
	김성화학(연결)	1,462.1	32.2%	217.9	10.6%	14.9%	172.4	7.5%	11.8%
제조 (2)	중구(연결)	322.2	-10.7%	48.7	-21.1%	15.1%	49.1	-15.6%	15.2%
	그리티(연결)	1,595.8	0.9%	71.7	-37.9%	4.5%	50.9	-46.2%	3.2%
	대한	1,628.2	-11.5%	1.4	-99.0%	0.1%	39.5	-71.2%	2.4%
	현대이서홀딩스(연결)	3,185.2	-4.7%	21.8	-79.0%	0.7%	-22.2	-	-
	미스토홀딩스(연결)	26,534.1	4.3%	4,764.2	20.1%	13.4%	3,925.5	41.7%	11.0%
	베일(연결)	506.5	-6.5%	71.7	-21.1%	14.1%	51.8	-10.6%	10.2%
제조 (3)	블록아이씨(연결)	370.4	60.3%	64.8	44.5%	17.9%	-80.7	-	-
	비비안(연결)	1,906.7	8.4%	19.2	-56.5%	1.0%	-0.7	-	-
	"삼성화신(파산부문)	14,593.9	-0.3%	786.2	-38.2%	5.4%	-	-	-
	"신생봉황(연결)	2,890.7	-7.9%	-92.7	-	-	-134.2	-	-
	천세계(이내세기)(연결)	9,222.2	-0.3%	3.2	-98.7%	0.0%	25.4	-92.3%	0.3%
	신세계Retail(연결)	1,258.6	-13.2%	-34.7	-	-	-32.9	-	-
제조 (4)	신영와코루(연결)	1,516.3	-5.5%	46.3	-19.0%	3.1%	96.6	82.4%	6.4%
	신워(연결)	8,206.6	17.1%	87.3	-57.0%	1.1%	-60.8	-	-
	생방울(연결)	664.2	2.0%	-25.1	-	-	-39.7	-	-
	여기왕(연결)(연결)	1,224.6	2.3%	82.7	-26.8%	6.2%	64.3	-14.8%	4.9%
	아즈텍(연결)	210.4	-20.0%	-8.2	-	-	29.5	196.8%	14.0%
	에스티그룹(연결)	1,236.5	-10.5%	-106.2	-	-	-82.7	-	-
제조 (5)	에스티모(연결)	491.9	1.7%	-24.7	-	-	-38.1	-	-
	에이아트랜즈(연결)	335.8	14.2%	41.9	-46.2%	12.5%	42.5	-32.8%	12.7%
	"에코마케팅(인다트홀드)	2,132.2	22.3%	250.5	0.6%	11.7%	191.0	7.3%	9.0%
	원행물산	116.8	-30.6%	-37.2	-	-	-26.0	-	-
	원스푸	233.2	-7.3%	-24.1	-	-	-31.6	-	-
	인디에프(연결)	742.0	-10.5%	-16.6	-	-	-35.7	-	-
제조 (6)	제로투네이브(연결)	540.4	5.1%	25.0	36.9%	4.8%	21.1	175.6%	3.9%
	제이에스티(연결)	501.8	-3.8%	5.2	6.5%	1.0%	9.3	6.5%	1.7%
	제시피스(연결)	1,951.9	-1.3%	144.1	-30.0%	7.4%	94.9	-42.0%	4.9%
	좋은사람들(연결)	564.0	-16.8%	-45.8	-	-	-53.2	-	-
	자연코(연결)	816.1	-10.9%	-3.8	-	-	-64.7	-	-
	진도	264.6	4.0%	-3.7	-	-	3.4	-136.3%	1.3%
제조 (7)	코데스(연결)(연결)	273.7	-3.1%	15.6	12.5%	5.7%	34.5	57.2%	12.6%
	"오윤인더(파산부문)	8,042.8	-5.6%	-58.2	-	-	-	-	-
	크리스에프엔티(연결)	3,863.1	65.6%	-34.3	-	-	125.0	803.9%	3.2%
	도박스(연결)(연결)	254.1	-10.5%	0.8	-90.0%	0.3%	-4.3	-	-
	티비에이(글로벌)(연결)	1,238.0	1.2%	-5.5	-	-	-15.2	-	-
	페션플랫폼(연결)	716.9	-1.7%	43.3	-29.1%	6.0%	-14.4	-	-
제조 (8)	풀그룹(연결)	3,093.5	30.9%	372.3	38.9%	12.0%	260.1	90.8%	8.4%
	한성(연결)	10,280.5	-2.0%	249.5	-41.1%	2.4%	226.3	-25.3%	2.2%
	한세(연결)(연결)	1,733.3	-3.7%	-201.8	-	-	-297.3	-	-
	현지금(연결)	364.3	-10.4%	-47.5	-	-	-59.1	-	-
	형지글로벌(스텔라(연결))	285.0	-12.7%	-17.8	-	-	-271.7	-	-
	"형지그룹(연결)	445.9	33.8%	74					

티나 단 한 곳이다. 크리스에 프앤씨(3863억원)와 블랙야크아이앤씨(370억원)는 매출이 60% 이상 증가했다. 이어 폰드그룹(33.9%), 협지엘리트(34.8%), 에코마케팅의 앤드류(22.3%), 신월(17.1%), 에이유브랜즈(14.2%), 스노우피크어페럴을 운영하는 감성코퍼레이션(12.2%) 순이었다.

영업이익 성장률은 협지엘리트가 402.2%로 가장 높았다. 블랙야크아이앤씨(44.5%), 폰드그룹(39.8%), 제로투세븐(36.9%), BYC(16.1%) 순으로 나타났다. 블랙야크아이앤씨는 워크웨어 부문 매출이 11.8%, 영업이익이 9.0% 증가했고 신규 편입된 소화설비 부문 매출이 더해지면서 성장했다. 산업 안전장비 수요 확대와 B2B 대형 거래처 중심 판매 증가가 성장 요인으로 분석된다.

크리스에프앤씨는 기존 관계기업 온타이드는 종속기업 전환 이후 170억 원 매출이 연결 매출로 반영되며 외형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63억 원대 적자가 발생해 손익에는 부담으로 이어졌다.

스노우피크 어페럴을 전개하는 감성코퍼레이션은 연결 기준 매출(1462억원)과 영업이익(218억원)이 각각 전년 대비 12.2%, 10.6% 증가했다.

협지엘리트(6월 결산)는 2025년 1분기(7~9월) 연결 매출이 33.8% 증가한 446억원을 기록했다. 스포츠 상품화 사업과 학생복·워크웨어 사업 경쟁력이 강화되며 영업이익(402%)과 순이익(433%)이 모두 5배 이상 증가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한국으로
꽃 배달은
0816 95 4414
kakao ID jihyun64
근조화, 축하 화환등

인니 인력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벌금 70억 루피아 부과

인력부는 ‘인력부에 신고(Lapor Menaker)’라는 새로운 민원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중대한 위반 사항이 지적돼 총 수십억 루피아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2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력부 애시에플리 장관은 지난 20일 “지난 4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위반 사항으로 18건의 불만을 접수됐으며, 총 벌금은 70억 루피아를 넘었다”고 밝혔다.

위반 사례 중 반면에서 한 국제 기업이 필수 외국인근로자 활용 계획(RPTKA) 승인 없이 58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례가 있었는데, 중앙 및 지방 노동 검사관들은 이를 조사 후 공식 검사 통지서를 발행했으며, 적절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된 모든 활동을 중단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인력부 신고 시스템은 11월 12일에 도입되어 20일 현재까지 8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현재 중앙 및 지역 차원의 노동 검사관들이 처리하고 있으며 이 중 814건의 불만 사항이 확인됐다. 단일 불만 사항에는 두 가지 이상의 잠재적 위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불만 사항은 여러 범주로 나뉘는데, 노동 관계와 관련된 불만이 441건으로 가장 많고, 임금 관련 민원은 427건으로 다음으로 많다. 애시에플리 장관은 “지난 2주 동안 전국 사업장의 노동 규범 및 산업 보건 및 안전 기준 준

수 현황을 보여주는 초기 통계를 수집했고, 이 데이터는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된 위반 사항 외에도, 기업들이 사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과 관련된 불만 사항도 상당수 접수됐다.

지난 6개월 동안 근로자의 사회 보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128건의 불만이 접수됐으며, 미납 금액은 총 365억 9천만 루피아에 달했다.

서부자바의 한 회사는 220명의 직원을 국가고용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등록하지 못했는데, 중앙 및 지방 검사관들로 구성된 합동 노동 검사팀은 고용사회보장국과 협력하여 해당 회사를 방문해 검사 통지서를 발행하고 모든 근로자를 등록하고 미지급된 모든 기여금을 정산할 것을 회사에 명령했다.

장관은 ‘인력부에 신고(Lapor Menaker)’ 플랫폼이 인도네시아 전역의 노동 및 보건 및 안전 기준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민원 플랫폼은 대중이 노동 규범 위반 사항에 대해 더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플랫폼은 다양한 공개 신고 채널을 통합하여 더 빠르고 집중적인 후속 조치를 보장한다.

플랫폼이 11월 12일 출시되기 전에 진행했던 시험 단계에서만 도 약 600건의 신고나 불만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임금과 사회 보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인력부는 신고 사례들을 분류하여, 사례에 따라 담당할 기관 및 부서를 정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김재훈의 세무상식

2025년 12월을 마감하며

김 재 훈 대표

2025년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12월에는 기업들이 연간 결산 및 세무조정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이다. 특히 올해는 세금 납부, 신고, 환급절차 등 모든 세무 행정이 통합 관리되는 Coretax System 이 시행된 원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여러 규정들이 Coretax System 에 맞게 변경되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행령 PMK 15/2025 시행을 비롯한 여러 조세행정 변화로 인해 연말 점검 사항이 더욱 중요 해졌다. 다음은 2025년 12월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세무 포인트를 정리하였다.

1. 2025 사업연도 법인세(PPh Badan) 사전 점검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법인세 신고는 2026년 4월이지만, 2025년 결산을 앞두고 다음 핵심 항목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 (1) 비용 손금 산입 가능 여부
- (2) 신고된 원천세(PPh 21/23/26) 및 부가세(PPN) 항목과 재무제표상 항목에 대한 일치 여부
- (3)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서화
- (4) 부채 비율
- (5) 차입금에 대한 이자 인식

2. 2025 년도 개인소득세(PPh OP) 사전 점검

2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는 26년 3월말까지이지만, 25년 12월말 기준으로 아래 사항은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연말 국외 계좌 잔액, 국내 계좌 잔액, 차량 및 부동산 구매 내역, 주식 취득등 12월말 재산 내역과 24년도 신고된 재산 내역을 비교하여 순재산 증가액이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외 금융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 공제 내역 확인서도 확인하여야 한다.

끝으로 2025년도는 여러 세무 규정이 실제 현장에서 본격 적용된 첫해로, 12월 점검이 매우 중요하며, 준비가 잘 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으며, 2026년 규정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코참 국제자문관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kimjhoon@bngconsulting.co.kr

유성 종합건설
PT. YUSUNG JAYA ABADI

**기술로 짓고
신뢰로 완성합니다.**

건설 기계 전기 배관
정수 및 폐수처리시설

유성열 대표 : 0812 8037 0303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Raya Curug Pos Bitung 15810
yusungjaya1@hotmail.com / 021 598 0222



인도네시아, 자격 갖춘 외국인에 글로벌 시티즌십 제공



▲자료사진 [인도네시아 이민국]

인도네시아 이민·교정부는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이중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새로운 외국인 체류 정책 '인도네시아 글로벌 시티즌십(GCI, Global Citizenship of Indonesia)'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인도네시아 이

민·교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역사적·가족적·정서적 연고가 깊은 외국인에게 영구적이고 무제한의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기존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GCI와 기존 KITAP(장기체류허가)은 다르다. 두 제도 모두 인도네시아와 장기적 관계를 가진 외국인에게 관련된 제도라는 점은 비슷하지만, 법적 지위·권한·목적이 완전히 다르다. GCI는 해외 인도네시아인(디아스포라)과 인도네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안

된 정책 패키지 개념이지만, 시민권(citizenship)을 주는 제도는 아니다.

즉 해외 거주 인도네시아인(이중국적을 갖기 어려운 사람들)과 인도네시아에 기여하는 글로벌 인재를 연결하는 정책으로 경제·문화·투자·학술 네트워크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GCI 소지자는 여전히 외국 국적자이며, 인도네시아 시민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투표권이나 정치적 직책을 가질 수 없으며, 인도네시아 여권을 받을 수 없다.

아구스 안드리안토 이민·교정부 장관은 "GCI는 이중국

적 논쟁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다. 인도네시아와 깊은 연고를 가진 외국인에게 폭넓은 체류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들의 기존 국적을 존중하고 국내법을 전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단일국적 원칙을 엄격히 유지해왔으며, 이로 인해 과거 인도네시아 국적자나 그 후손들이 모국과의 실질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GCI 제도는 인도네시아와 관련된 폭넓은 외국인 집단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이러한 간극을 메우는 것을 목표

로 한다.

GCI 신청 자격 기준은 전(前) 인도네시아 시민, 전 시민의 2세대 후손, 현 인도네시아 국민 또는 전 인도네시아 국민의 합법적 배우자, 인도네시아 국민과 외국인 사이에서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가 포함된다.

반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한때 인도네시아 영토였던 국가의 시민, 분리주의 활동에 연루된 인물, 외국 정부의 공무원·정보기관 요원·군인 신분자 등이다.

GCI 신청은 evisa.imigrasi.go.id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초저가의 그늘…쉬인 의류서 유해화학물질 최대 3300배 초과

그린피스, 삭제 후 복제품 재판매 구조적 문제 지적

그린피스가 글로벌 울트라 패스트패션 기업 쉬인(Shein)의 의류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다시 한번 심각한 수준의 유해 화학물질이 확인됐다. 시험 대상 56별 가운데 18별이 유럽연합(EU) 규제 한계를 넘어섰으며, 일부 품목은 기준치를 수천 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린피스가 분석한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원한 화학

물질(PFAS)'과 '가소제(프탈레이트)'다. 연구진은 쉬인 재킷류 7품목에서 PFAS가 EU 한계를 최대 3300배 초과했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14개 품목 중에서도 6개 제품은 기준치의 100배 이상을 넘었다. 아동복·어린이용 제품도 포함돼 있어 소비자 안전성 우려는 더욱 커졌다. 초저가 플랫폼 특성상 제품 수가 방대하고 공급망이 다단계로 얹혀 있어 기업이 밝히는 관리체계와 실제 제품



▲그린피스가 쉬인 제품에서 유해 화학물질을 확인했다. 사진=그린피스

품질 사이에 고리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특히 그린피스는 쉬인의 대응 방식에도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봤다. 쉬인은 "식별된 문제 제품을 글로벌 판매

에서 즉시 중단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NGO 측은 "삭제된 제품과 유사한 복제 상품이 짧은 시간 내 다시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하나의 SKU(품목 번호)를 제거해도 유사한 디자인과 소재를 가진 상품이 다른 공급망 라인에서 계속 생산·출하되는 것이다. 초광속 생산·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성장한 쉬인이 '유해물질 제한 목록(MRSL) 도입'과 '대규모 검사'를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공급망

전반의 화학물질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유럽 규제의 사각지대 문제도 다시 부각됐다. 쉬인이 플랫폼 기반 크로스보더 직배송 방식으로 EU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는 구조 때문에, 실제로는 REACH 규제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규모 플랫폼 기반 패션 기업이 글로벌 규제의 하점을 비즈니스 모델과 결합할 경우, 시장 진입은 쉬워지는 반면 안전·환경 기준 준수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디젤 발전기

BGT POWER SOLUTIONS

판매
임대

점검관리

수리

유지, 보수



소형 5kVA ~ 220kVA 중형 250kVA ~ 700kVA 대형 800kVA ~ 4,000kVA

오리지널!! 가격 경쟁력 제고! 고객사 니즈에 신속대응!

고객 맞춤제 시행! A/S철저! 철저한 유지, 보수 관리 제공!



고객 문의

박 성 응 Hp : 0812 9512 8990



PT. BINTANG GLOBAL TEKNIK

Mutiara Taman Palem Blok C19 No. 82, Cengkareng, Jakarta Barat 11730, Indonesia
Tel: 021-2252-4373, 2252-4342 | Fax: 021-2252-4365 | Email : bakchan@daum.net

코참 제7대 회장, 이강현 회장 연임 확정...안정적 리더십으로 지속 성장 다짐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코참, KOCHAM)는 11월 12일(수) 자카르타에서 제7대 회장 선출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고, 현 이강현 회장을 만장일치 추대로 연임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승범수 수석부회장이 의장으로, 임종순 사무총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었으며, 송창근 명예회장과 김종현 고문을 비롯한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성원보고와 회장 후보 정견발표, 추인 절차 순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출마한 이강현 회장은 “지난 6대 회장 임기 동안 정관 개정과 대기업 회원유치를 통해 코참의 조직적 기반을 다졌으며, 한국 공공기관을 특별회원으로 조정해 기업 간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왔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코참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 회장은 정견 발표에서 “팀코리아(Team Korea) 정신을 계승해 정부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인도네시아 정·재계 인사를 초청해 분기별 정기 간담회와 친선 라운딩, 차세대 간 네트워킹 모임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및 아세안 국가 한인상공회의소와의 협력 교류를 본격화하고, 매년 한국학교와 인도네시아 주요 대학 한국어과에 장학금 지원사업을 확대해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코참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코참 제7대 회장선출을 위한 이사회에서 이강현 회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코참)

승범수 의장은 “오늘의 연임 결정은 인도네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극복하기 위해 단합력으로 극복하려는 코참의 방법이며, 이회장님의 지난 임기 동안 보여준 혁신과 신뢰에 대한 회원사들의 공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전했다.

코참은 앞으로도 한국기업의 안정적 투자 환경 조성과 회원사 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둔화와 인도네시아 내 투자 위축 상황 속에서, 코참이 한국기업과 교민사회를 연결하는 실질적 교량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자카르타경제신문]

[제7대 회장 이강현 후보 정견 발표문]

존경하는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제 7 대 회장 후보로 서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

각합니다. 무엇보다 교민 사회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 출마를 양보해 주신 승범수 수석부회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같이 힘을 합쳐 재선 3년 기간 동안 코참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 대 임기 동안 부족한 점도 있었지만, 공약으로 내세웠던 주요 과제들을 큰 탈 없이 무난히 추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기업 회원사 유치를 통해 토착 기업들과의 협력 시너지를 강화하고, 정관 개정을 통해 코참 조직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공공기관들의 대부분을 특별회원으로 초청함으로써, 기업 간의 협력 및 지원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파동 때입니다. 당시 봉제업계 회원들의 절박한 연락이 이어졌고,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정부 유관부처와 여러 채널을 통해 대응에 힘썼습니다. 최종적으로 19%로

결정된 그날, 비로소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참 회장’이라는 자리가 지닌 책임감과 무게를 다시금 절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 제 7 대 회장으로서 저는 다음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코참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고자 합니다.

첫째, ‘팀 코리아 (Team Korea)’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정부기관·대기업·중소기업이 함께 협력하는 실질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공동 세미나, 기업 규제 개선 간담회 등을 대사관

, 코트라와 공동 주최하여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우리 기업의 현장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회원 간 네트워킹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정·재계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분기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측의 교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차세대 회원 및 사무차장들의 분기별 모임을 정례화하여, 젊은 세대의 참여와 교류의 폭을 넓힐 것입니다. 아울러 친선 골프라운딩을 격월 세 번째 토요일로 확정해, 자연스럽고 지속적인 친목의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해외 코참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글로벌 네트워크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대한상의 인니 데스크가 작년에 진출하여, 아세안 주요국 코참과 정례 회의를 추진하고 상호 방문하는 등 아세안 내 한국기업의 발언권 강화를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하겠습니다.

또한, 한국 및 아세안 각국의 한인상공회의소를 직접 방문하여 협력 교류를 시작하고, 정보 공유와 공동 사업 추진 등 지속 가능한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CSR(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여, 인도네시아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코참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지 청년에게 실질적 기회를 제공하고 한국기업 인재풀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산학 연계 프로그램을 인니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한국국제학교 및 주요 인도네시아 대학 한국어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 세대가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돋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장단원 및 이사회원 여러분,

요즘 전 세계와 인도네시아 경제 모두 쉽지 않은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투자 심리도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코참이 중심이 되어 우리 기업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며, 교민 사회의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참은 이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여러분과 함께 “우리 모두의 힘으로, 새로운 코참”을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YUNGWON is writing the history of Korean air compressors KYUNGWON Compressor is manufactured in Korea with 100% Korean Technology



KYUNGWON COMPRESSOR GENUINE PARTS



 **KYUNGWON**
COMPRESSOR

경원기계공업주식회사

한국직영점: (주)동부경원제기

TEL: +82-2-465-6308 / 3884 박용환 대표: +82-10-5345-2884
Email: dbkw2000@hanmail.net Web Site: www.dbkw2000.com

인도네시아 대리점: PT.KYUNGWON ARIM INDONESIA

공장 및 사무실: JL. Niaga Industri Blok QQ2 Nomor 11 Kawasan Industri, Jababeka Phase 2, Desa/Kelurahan Pasirsari, Kec. Cikarang Selatan, Kab. Bekasi, Provinsi Jawa Barat
TEL: +62-21-8926-1370 이갑진 매니저: +62-822-5818-8770
Email: dbkw2000@gmail.com

2025년도 KOGA 연회비 수입현황 (01/01~11/25)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1	BANGUN MAJU LESTARI	2025.01.13	50 JT			
2	NOTOS (WOON)	2025.01.13	15 JT			
3	TRADEWIND INDONESIA	2025.01.13		3,5 JT		
4	DAEDONG INTERNATIONAL	2025.01.13		3,5 JT		
5	MYUNGSEONG MACHINERY	2025.01.13		3,5 JT		
6	UNGARAN INDAH BUSANA	2025.01.13		3,5 JT		
7	SEYANG ACTIVEWEAR	2025.01.13		3,5 JT		
8	SAMSAM JAYA	2025.01.13		3,5 JT		
9	SEYOUNG INDUSTRY	2025.01.13		3,5 JT		
10	AAB	2025.01.13		3,5 JT		
11	BLUE ROSE NARADO	2025.01.14		3,5 JT		
12	PURNAMA ASIH SUR	2025.01.14		3,5 JT		
13	INKORDAN	2025.01.14		3,5 JT		
14	DREAMWEAR	2025.01.14		3,5 JT		
15	WOOSHIN GARMAENT	2025.01.15		3,5 JT		
16	TPINC TRADING	2025.01.15	30 JT			
17	KAHOINDAH	2025.01.16		3,5 JT		
18	GAYA INDAH KHARISMA	2025.01.16	15 JT			
19	OROM CONSULTING	2025.01.16	15 JT			
20	DASAN PAN PACIFIC	2025.01.16		3,5 JT		
21	DTL	2025.01.17	15 JT			
22	KEUMKWANG	2025.01.17	15 JT			
23	TUNGGAL INDOTAMA ABADI	2025.01.17	15 JT			
24	BOSUNG	2025.01.17		3,5 JT		
25	DOOSAN CIPTA BUSANA	2025.01.17	30 JT			
26	ZIMMOAH MARINE TRANS	2025.01.17		3,5 JT		
27	ZIBEN INDONESIA	2025.01.17		3,5 JT		
28	JUN H INDONESIA	2025.01.20		3,5 JT		
29	GAYA MAKMUR	2025.01.20		3,5 JT		
30	HESED	2025.01.20	15 JT			
31	PERTIWI INDO MAS	2025.01.20		3,5 JT		
32	L&B INDONESIA	2025.01.20		3,5 JT		
33	INDO BOX	2025.01.20		3,5 JT		
34	DONGJUNG	2025.01.21		3,5 JT		
35	KG FASHION	2025.01.21		3,5 JT		
36	SEJIN GLOBAL	2025.01.21		3,5 JT		
37	YOUNHEUNG MEGASARI	2025.01.22		3,5 JT		
38	CITRA UNGGUL PERKASA	2025.01.22	15 JT			
39	KARYA TRI ABADI	2025.01.23		3,5 JT		
40	WINNER INTRNATIONAL	2025.01.24	30 JT			
41	DELTA MATE MAJALENGKA	2025.01.25		3,5 JT		
42	DELTA MATE INDONESIA	2025.01.25		3,5 JT		
43	UNICORN MACHINE	2025.01.30		3,5 JT		
44	SCENIC INTERNATIONAL	2025.01.30		3,5 JT		
45	KNH GARMINDO JAYA	2025.01.30		3,5 JT		
46	HARINDO	2025.01.30		3,5 JT		
47	MAJUEL	2025.01.30		3,5 JT		
48	SOLVE IT	2025.01.31		3,5 JT		
49	MINU	2025.01.31		3,5 JT		
50	YB APPAREL JAYA	2025.01.31		3,5 JT		
51	HARAPAN GLOBAL	2025.01.31		3,5 JT		
52	JIN MYOUNG	2025.02.03		3,5 JT		
53	PELITA HARAPAN ABADI	2025.02.03		3,5 JT		
54	MANITO	2025.02.06		3,5 JT		
55	HANSAE INDONESIA UTAMA	2025.02.06	30 JT			
56	JM TECH	2025.02.10		3,5 JT		
57	PETRA SAKTI	2025.02.10	30 JT			
58	AMOS INDAH INDONESIA	2025.02.12		3,5 JT		
59	HANSOLL	2025.02.14	30 JT			
60	AAM	2025.02.14		3,5 JT		
61	PERMATA GARMENT	2025.02.14		3,5 JT		
62	RINA JAYA GARMENT	2025.02.14		3,5 JT		
63	DONGYANG NISUSINDO	2025.02.14		3,5 JT		
64	C-SITE TEXPIA	2025.02.17		3,5 JT		
65	SAMKYUNG JAYA	2025.02.18		3,5 JT		
66	LIMANTARA INDAH	2025.02.18		3,5 JT		
67	ING INTERNATIONAL	2025.02.18		3,5 JT		
68	MUARA TUNGGAL	2025.02.18		3,5 JT		
69	KOREA VILENE	2025.02.19		3,5 JT		
70	DAYUP INDO	2025.02.20		3,5 JT		
71	SEOWON	2025.02.24		3,5 JT		
72	DAEHAN GLOBAL	2025.02.24	30 JT			
73	SAMSHING INDONESIA	2025.02.24		3,5 JT		
74	SUKWANG INDONESIA	2025.02.25	30 JT			
75	TAEWON	2025.02.26		3,5 JT		
76	BUSANA INDAH GLOBAL	2025.02.27		3,5 JT		
77	PARAN INTERNATIONAL	2025.03.03		3,5 JT		
78	GOLDEN GARMENTS	2025.03.05		3,5 JT		

NO.	회원사명	입금일자	회장단	상임사	일반사	찬조금
79	GLOBAL TRIMS CREATOR	2025.03.05			3,5 JT	
80	INKORDAN	2025.03.06		30 JT		
81	ELITE	2025.03.07		3,5 JT		
82	WONEEL MIDAS	2025.03.07		3,5 JT		
83	HANSOL PLEATS	2025.03.07		3,5 JT		
84	GREENLON	2025.03.11		3,5 JT		
85	SUCI PINTAK PLEATS	2025.03.11		3,5 JT		
86	MUTIARA BUSANA INDAH	2025.03.12	15 JT			
87	BLUE SEA GLOBAL	2025.03.12		3,5 JT		
88	KIDO MULIA INDONESIA	2025.03.12		3,5 JT		
89	PESAT GLOBAL	2025.03.14		3,5 JT		
90	YONGJIN	2025.03.18		3,5 JT		
91	SUN SUKA ABADI	2025.03.20		3,5 JT		
92	GUNUNG SALAK SUKABUMI	2025.03.20		3,5 JT		
93	TA GLOBAL	2025.03.24		3,5 JT		
94	WORLD STAR GARMENT	2025.04.28	15 JT			
95	SJ CONSULTING	2025.05.09		3,5 JT		
96	HJ BUSANA INDAH	2025.05.22		3,5 JT		
97	HWASHIN GLOBAL	2025.05.23		3,5 JT		
98	PPF	2025.05.28		3,5 JT		
99	JEFF SOURCING	2025.05.28		3,5 JT		
100	SKYLINE TAEHO INDONESIA	2025.05.30		3,5 JT		
101	DK INTERNATIONAL	2025.06.02		3,5 JT		
102	GREENTEX INDONESIA	2025.06.02		3,5 JT		
103	YURI INDO APPAREL	2025.06.03		3,5 JT		
104	SUNGBO JAYA	2025.06.03		3,5 JT		
105	업체미상	2025.06.09		3,5 JT		
106	BUMA APPAREL INDUSTRY	2025.06.10		3,5 JT		
107	KOTEK INDAH	2025.06.10		3,5 JT		
108	DAESANG INTERNATIONAL	2025.06.12		3,5 JT		
109	BPG	2025.07.01	30 JT			
110	YOUNGHYUN STAR	2025.07.23		3,5 JT		
111	PRESTASI UTAMA NYATA	2025.07.25		3,5 JT		
112	ISTANA GARMINDO	2025.07.30		3,5 JT		
113	JS JAKARTA	2025.07.31	20 JT			
114	INDO HOSE	2025.08.08		3,5 JT		
115	WOORI SUKSES APPERAL	2025.08.11		3,5 JT		
116	GORI GLOBAL	2025.08.11		3,5 JT		
117	MULTI WELL EMBROIDERY	2025.08.11		3,5 JT		
118	APLUS LOGISTIK	2025.08.12		3,5 JT		
119	GLOBAL BUSANA	2025.08.13		3,5 JT		
120	LEADERS WORLD	2025.08.15		3,5 JT		
121	KAILO	2025.08.15		3,5 JT		
122	KYDO INDONESIA	2025.08.20		3,5 JT		
123	TIGA KYUNGUNG	2025.08.20</				



▲'K2'가 900 필파워와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해 최상의 보온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다운 'G900 트리니티다운'을 선보인다.

K2, 압도적인 보온력의 프리미엄 구스다운 'G900 트리니티 다운'

900필파워 헝가리 구스와 고어텍스 적용
뛰어난 보온성 · 방풍 · 방수 기능 제공

아웃도어 브랜드 'K2' 가 900 필파워와 고어텍스 소재를 적용해 최상의 보온력을 제공하는 프리미엄 다운 'G900 트리니티(TRINITY) 다운'을 출시한다.

K2 'G900 트리니티 다운'은 복원력이 우수한 900 필파워(Fill Power)의 헝가리 구스(솜털·깃털 비율 90:10)를 사용해 경량성과 보온성이 우수하다. 필파워는 다운 1온스(28g)를 24시간 압축한 후 압축률을 풀었을 때 부풀어 오르는 복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필파워가 높을수록 공기 함유량이 많아져 가벼우면서 우수한 보

온성을 제공한다.

겉감에는 탄소 발자국을 줄인 불소(PFC) free 제품인 확장 폴리에틸렌(ePE) 멤브레인을 적용한 새로운 고어텍스 소재를 사용해 뛰어난 내구성과 방수·방풍 기능을 제공한다. 안감에는 초경량 10데니어 소재를 사용해 부드럽고 가벼운 착용감을 구현했다. 그래핀 발열 안감을 적용해 정전기 방지와 보온성을 동시에 강화했다.

특히 등판 내부에는 3D입체 퀼팅 봉제 기술을 적용해 퀼팅 공간 내부를 확장하여 보온력을 극대화했다. 여성용은 사가 폭스퍼 트리밍과 벨

트 버클 장식을 더해 우아하고 슬림한 실루엣을 강조했다. 남성용은 핀란드산 라쿤피와 후드 탈부착 구성으로 클래식한 분위기를 완성했다. 컬러는 여성용 어반차콜·펄그레이·블랙, 남성용 블랙으로 출시된다.

K2 의류기획팀 조두연 부장은 " 'G900 트리니티 다운'은 K2의 소재 기술력과 프리미엄 감성을 집약한 대표 제품" 이라며 "혹독한 겨울 환경에서도 최상의 보온성과 세련된 실루엣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안녕하십니까, 부산인도네시아센터(BIC) 김수일 이사장입니다.

저희 BIC 산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BIC JAYA INDONESIA(BICJI)가 금번 인도네시아 노동부(DEPNAKER)로 부터 “1.산업환경 측정(Keselamatan & Kesehatan Kerja:K3), 2. 근로자 건강검진(MCU), 3.사내 클리닉(In House Clinic) 운영 등” 산업환경 보건 부문의 검사 대행기관 인가를 취득하고 활동을 개시하게 돼, 우선 지면으로 인사드립니다.

BIC는 1985년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에 의해 부산에서 부산인도네시아문화원(BICC)으로 설립되어, 초기에는 한-인도네시아 간 문

화 교육 교류 증진에 기여했으며, 1990년대 초~2000년대 초 기간에는 부산, 경남 북, 울산, 제주를 관할하는 주부산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HCIB)으로 승격돼 비자 발급, 무역 및 투자 서류 공증 등 영사관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부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에서 인도네시아로 진출한 다수의 불법 신발 등 분야 기업들과는 귀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BIC는 부산에서는 “인도네시아정부 할랄청(BPJPH)으로부터 한국대표부 겸 할랄인증서 발급 대행기관(LHNL)”으로 지정

돼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수출되는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대한 할랄인증서 발급업무를 하고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산업환경 보건 부문 검사 대행 기관(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시작한 K3 업무와 동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오랜 협력관계, 그리고 산업환경 보건(K3) 부문에서 세계적인 선진국인 한국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심도깊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하게 되었으며, 덕분에 진출

후 단 기간 내에 인도네시아 노동부로부터 동종 업종 유일의 “전략적 파트너(STRATEGIC PARTNER)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으며, 이어서 NIKE, ADIDAS, NB 등 글로벌 브랜드들이 인정하는 인도네시아 국공립 산업환경보건 기관들인 “노동부직할 작업환경보건원(BALAI BESAR K3)”, “자카르타시립 작업환경보건원(HIPERKES JKT)” 등과 협력파트너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PT.BIC Jaya Indonesia는 산업환경보건 부문 유일의 한국계 측정 검사 대행기관이라는 자부심과 사

명감을 갖고, 고객사 생산현장의 안전과 위생,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가 생산성과 경쟁력, CSR 기업이미지 제고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을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신속 정확한 측정 검사를 위해서는 당사 기술사들의 현장 답사와 상담이 필요하니, 아래 전화로 연락주시면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T.BIC JAYA INDONESIA
WISMA STACO(Lt.6), JL.Raya
Casablanca, Jkt
T:021-3049-0114. www.
bicjayaindonesia.com



PT. BIC JAYA INDONESIA

작업환경측정(K3) / 근로자 건강검진(MCU) / 사내클리닉(In House Clinic)부문
인도네시아 정부(DEPNAKER) 대행기관

**인도네시아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기관,
한국 기업들의 든든한 산업보건 환경 지킴이!**



노동부 장관 BIC 방문
(2022.12)



노동부 차관 BIC 방문 (2023.12)



노동부 전략적 파트너 임명
(2024.5)



수하르토 대통령 BIC 주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 지정
(1993~2007)

JAKARTA : Wisma Staco 6F, Jl. Raya Casablanca Kav. 18 +62 21 3049 0114 bicjaya.id@gmail.com
KOREA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57 부산 인도네시아센터(BIC) +82 51 365 0041 www.bic-korea.com



UTAMAKAN KESELAMATAN
DAN KESEHATAN KERJA

BIC은

- 작업환경측정(K3)/산업보건 환경분야에서 인도네시아 최초 한국계 인도네시아 정부(노동부) 대행기관
- 인도네시아 노동법상 근로자 10명 이상 고용업체 연 1회 작업장 환경측정/근로자 건강검진 법적 의무사항
- 한국에서 노동부 지정 산업보건기관 운영을 통해 풍부한 경험과 기술, 노하우 축적
- 작업환경 측정, 근로자 건강검진, 사내 클리닉 (In House Clinic)운영을 패키지로 일괄 수행
- 40여년간 한국에서 부산 인도네시아 명예영사,관광부,노동부,할랄청,대표부 역할을 통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각별한 협력관계 유지, 우리 기업들의 대 인도네시아 정부 애로사항 해결지원

주요브랜드 2025 광고촬영스토리 당신의 옷장을 채울 옷은?



코치, 새로운 시작을 향한 선물같은 용기

코치가 2025 홀리데이 캠페인 'The Gift for New Adventures' ('새로운 여정을 위한 선물')을 공개했다. 코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다가오는 새해,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전한다. 글로벌 앰버서더인 배우 엘 패닝을 비롯한 여섯 명의 인물은 각자의 다채로운 재능과 개성, 자신감을 통해 코치의 브랜드 철학 '진정한 나 자신이 될 용기'를 표현했다.



뉴발란스, 추운 계절 속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 메이트

뉴발란스가 브랜드 앰버서더 김연아와 함께한 2025 F/W 시즌 '액티브 다운' 캠페인 영상과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겨울

의 퀸, 김연아의 은밀한 겨울 비밀을 공개한다.'는 콘셉트 아래, 추운 계절 속에서도 든든하고 따뜻한 겨울 메이트로 함께할 뉴발란스 '액티브 다운'을 선보인다. 화보 속 김연아는 일상 속에서 우아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무드를 담아낸다.



풀햄,
신비로운 매력을 담은 겨울 초원 풀햄이 배우 김태리와 함께한 2025 겨울 아우터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겨울 풀햄은 2025 F/W 시즌 테마인 '태리의 초원'을 이어받아 자연 속에서 계절의 변화를 통해 느낄 수 있는 풀햄이 지향하는 따뜻한 감성의 아우터 스타일링을 제시한다. 이번 시즌 풀햄은 김태리 특유의 감성과 고급스러움을 모티브로, 미니멀하고 감각적인 디자인을 선보였다.



메종키츠네,
위트와 함께한 헤리티지의 정수
메종키츠네가 뮤지션 정재형과 함께한 2025 F/W '그레이 폭스 헤드' ('Grey Fox Head') 캠페인을 공개했다. '그레이 폭스 헤드'는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에 회색 여우 로고 포인트를 준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내는 라인이다. 정재형은 독창적인 음악 세계를 구축해온 뮤지션으로 그의 세련된 스타일링 감각은 메종키츠네의 철학과 맞닿아 있다.

HANSHIN

에어 �プレ쓰터



TANGERANG 본점

유 성 열 : 0812 8037 0303 | Mariano : 0812 8763 965
Email : hanshincompressor@yahoo.co.id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CIKARANG 영업소/AS점수

김 동 찬 : 0821 6400 0365
Ruko Simprug Plaza, Jl. Simprug Raya Blok B2
No. 10 Sertajaya, Cikarang Timur

JEPARA 영업소/AS점수

정 연 오 : 0815 1938 0006
Desa Troso RT. 007 / RW. 010, Kel. Troso
Kec. Pecangaan Jepara Prov. Jawa Tengah